

# ● 일본의 양계소식

## 산란계

### □ 2003년의 산란계

산란계 업계는 2003년 수요를 무시한 생산에 의하여, 난가가 폭락하고 수익자체가 커다란 적자이고 귀중한 재산인 신용도 사라져 버렸고 끝없는 반복이 계속되는 최악 이 겹쳤다(경영이념이나 경영철학에서 손실을 최악으로 간주함).

「폭락하는 난가로부터의 탈출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커다란 화를 대면할 위험이 있다고」여름철 특집호에서 지적하였지만, 그 심각성은 달이 갈수록 더해져서 전후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였다.

수년간 일정한 사육수수와 판매처를 고정시켜 전실경영 하나에 노력하여, 가족이나 종업원을 생각해 온 양계농가도 다른 농가의 사육수수 증가에 의한 난가 폭락의 피해를 만났다.

말할 수 없는 고생속에서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날마다 차입금의 이자가 쌓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육수수의 증가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허무함을 어디에 해소연할까」하고 생각하였을 때 위험에 처한 비통한 호소에 어리둥절 하였다.

끝없이 계속되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계란, 생산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후 어떻게 될까? 계란 유통업계의 비명도 각지에서 들려온다. 시장에 넘쳐나는 과잉의 계란을 일시에 해소하고, 유통을 정상화시키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육수수의 감소가 최선의 방법이며 그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비용을 밀도는 가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각한 만큼 진전이 없었다. 사육수수를 유지해온 사람도 「난가 대폭락의 원흉은 사육수수를 증가시킨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강하고, 사육수수 감소는 사육수수를 늘린 사람의 판촉을 돕는 일이 되는 것이다라는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비상사태이다. 「국내산 계란」을 지키기 위해서도 난가 폭락의 원흉으로 불리어지는 사육수수를 증가시킨 사람들은 솔선하여 사육수수를 대폭 줄이고 여기에 다른 사람도 감산에 협력하여 위험을 탈출하는 것이 지금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옛날에는 병에 걸렸거나 경사가 있을 때에만 먹을 수 있었던 귀중한 “계란” 이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난가폭락은 무정한 것이다. 크게 반성해야 한다.

작년 난가 174엔, 어려운 다른 산업을 쳐다보면서 「자금회수도 좋고, 산란계를 하여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2004년 사료가격이나 경기동향, 더욱이 과잉생산의 염려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앓고 있어 동경시장 M란 기준 년 평균가격을 155엔으로 예측하였다(계명신문 발췌).



윤 병 선  
한경대 KRRC 전임연구원/농학박사

표. 동경계란가격

(단위: 엔, 일본 계명신문 발췌)

크 기	LL	L	M	MS	S	SS	입하량
가 격	95	95	95	90	85	50	890t



## 특 기

### □ 2003년 브로일러

일본에서 브로일러가 시작된지 30여년 산란계보다는 역사가 짧지만 항상 국제경쟁이라는 외압에 시달려 왔지만, 각각의 기업이 노력하고 때로는 업계협조로 힘차게 성장해 왔다. 생산 혹은 가격면에서는 자유 무역협정에 의하여 움직임도 작아졌고 가격도 낮아졌지만 안전·안심, 그리고 일본산 닭고기의 우수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일본산 닭고기는 영원할 것이다.

2003년 닭고기 시장을 되돌아보면 전반기는 생산과잉으로 넓적다리와 가슴의 정육 가격이 내렸지만, 후반기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중국산 닭고기의 수입 정지 이후, 순조롭게 회복하여 연간 가격은 넓적다리 정육 579엔, 가슴정육 204엔 정도였다. 2004년 닭고기 시장은 사료가격이나 수입물량의 동향, 그리고 소비동향 등이 불투명하여, 업계에 식견이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가격 예측을 부탁한 결과 동경시장 기준 연간 평균 가격은 넓적다리 정육 593엔, 가슴 정육 208엔으로 나타났다(계명신문 발췌).

### □ 사료가격 Kg당 1.8엔(18원) 인상

일본 농협은 지난 12월 19일 2004년 1~3월의 배합사료 가격을 전국 전축종 평균 Kg당 1.8엔의 인상을 발표하였다. 사료기금으로부터의 보전금액은 1.65엔(한화 16.5원)으로 실질적인 농가 부담금액은 Kg당 0.15엔(한화 1.5원)이 되게 된다.

구체적인 인상폭은 지역별, 축종별, 상품별로 다르지만, 이번 인상은 대두박 등 단백질 원료의 인상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원료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닭, 돼지용 사료의 인상액은 평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기업도 농협과 함께 배합사료 가격을 인상한다(계명신문 발췌).

### □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일본에서도 79년만에 발생하였다고 농림수산성에 서 1월 12일 발표하였다. 일본에서는 1925년 이후 야마구찌쨩(山口縣)소재 사육수 34,640수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였다. 1월11일 관할가축보건위생소로부터 야마구찌쨩(山口縣)을 경유하여 농림수산성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의심된다는 연락이 있어, 독립행정법인 농업·생물계특정산업기술연구기구 동물위생연구소에서 폐사계 등의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H5아형A 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어, 해당 닭이 고병원성인플루엔자의 환축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초동방역조치로 발생농장의 외부인 출입제한, 계란의 출하차제, 계사소독 등을 실시하고, 공중위생국과 연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방역 매뉴얼에 따라 전계군의 살처분, 소독, 주변농장의 이동제한(닭 등 가금, 병원체를 확산시킬 염려가 있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0Km이 내의 구역에서 실시) 역학조사 실시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살아있는 닭과의 접촉으로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있지만, 계란이나 계육을 통한 감염은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바가 없으나 만일에 대비하여 출하된 계란을 회수하도록 지도하였다(일본양계협회자료 발췌).